

# 한·미 FTA 등 농업협상 동향

## Free Trade Agreement



### 01 한미 FTA 농업분과 제7차 협상 결과

#### 1. 제7차 협상개요

- 제7차 협상은 2월 11일~14일 미국 워싱턴 D.C.에서 개최
  - 농업분과 협상은 2.12일~14일 개최되었으며, 위생 및 검역(SPS), 서비스·투자, 원산지 분과 협상에도 참석
- 농업 분과는 상호 기대하고 있는 양허수준의 차이를 적극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 하였으나, 민감성이 낮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함
  - 민감품목 양허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으나, 기대수준의 차이가 여전히 큼을 확인하는데 그쳤음.
  - 농산물 셰이프가드 및 수입쿼타(TRQ)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나, 세부사항에 있어 이

견을 좁히지 못함.

- 위생 및 검역(SPS)분과는 FTA 체결 이후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채널의 형식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해 협의
  - 우리측이 절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추가 협의하기로 함
- 제8차 협상은 3.8일~12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함

#### 2. 농업 분과 주요 논의 사항

- 농산물 양허에 집중하여 논의를 진행했으나, 민감성이 낮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큰 진전을 이루지는 못함.
  - 다만, 민감품목 양허수준, 농산물 셰이프가드, 수입쿼타(TRQ)적용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교환함으로써 상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

- 미국은 민감품목 양허에 대한 자국의 요구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하였으나, 상당히 높은 기대수준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협의 과정에 어려움 예상

- 미측은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견지하며, 자국 관심품목의 경우 의미있는 시장접근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

- 농산물 셰이프가드와 수입쿼타(TRQ)의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하여 쟁점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, 향후 지속적으로 협의 필요
- 농산물 셰이프가드에 대해서는 발동 기준물량 및 관세수준 등에 대해 입장차가 크게 나타났다.
- 수입쿼타(TRQ)와 관련해서는 쿼타 물량(초기 물량, 증량수준)과 관세철폐 여부가 최대 쟁점임

### 3. 농업 분과 주요 논의 사항

- 위생 및 검역(SPS) 분과 : 협의채널과 관련 우리 측이 양측 입장을 절충하여 작성한 제안을 토대로 논의하여 상당 수준 의견접근

- 원산지 분과 : 육류, 설탕, 담배 등 민감품목의 원산지 기준에 대해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실질적 진전을 보지 못함.

- 서비스 분과 : 농업 관련 유통, 저장 서비스 유보안을 위주로 양측 관심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상당 수준 의견 접근

### 4. 향후계획

- 민감품목 양허 방향을 중심으로 대안을 추가 검토하고, 전체 협상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별 대응 전략 마련

- 이번 협상에서 교환된 의견을 토대로 품목별 농산물 셰이프가드, 수입쿼타(TRQ)에 대한 세부 협상안 재검토
- 고위급 협의 개최 여부 및 구체적 일정 등은 전체 협상 일정을 고려하여 결정

- 국회와 농업계에 협상동향을 상세하게 전달하고, 농업계 전문가 및 품목단체와 협상전략 지속적 협의

